

투데이 칼럼

꽃그늘에 피는 어떤 희망, 이팝나무 희망

꽃에서 꽃으로 색과 향의 릴레이가 펼쳐지는 계절이다. 선운사 동백꽃이 툭툭 머리를 떨구기 무렵에 산벚이 아카시 나무, 이팝나무가 하얀 이파리를 날리더니, 이제 붉은 장미로 꽃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의 고향이면서 현재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무장면 또한 순백의 꽃 잔치가 벌어졌다. 무장면 소재지를 가로지르는 거리에 듬직하게 도열한 이팝나무다. 단번에 피었다가 미련 없이 툭툭 이파리를 버리며 한꺼번에 지는 꽃, 이팝이다.

고창은 이팝나무의 고향이다. 대산면 중산리 목교마을의 천연기념물 183호 이팝나무는 10미터가 넘는 키에 3미터 가까운 둘레로 250년 넘는 세월을 버티며 마을사람들과 희로애락을 나눴다.

그야말로 노거수(老巨樹)다. 고창 대신의 이 이팝나무는 고창군과 국립산림과학원, 문화재청이 영구보존을 위해 복제나무를 키우고 있을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농도(農都) 고창에서 오래 사랑받아온 이팝나무가 5월 내내 온통 하얀빛으로 무성한 이팝꽃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왜, 우리는 그 오랜 세월 이팝나무를 아끼고 사랑해왔을까. 시절 탓이다. 인근 공음면 청보리밭은 이제 청보리를 지나 황금 보리로 익어가고 있다. 아직 변변한 식량을 땅으로부터 얻기 전인 보릿고개, 하얀 쌀밥 같은 꽃잎을 보며 깊은 허기를 잠시라도 잊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의 기억 때문이다. 그렇게 바라던 흰 쌀밥(이밥)과 닮은 꽃 이팝나무에는 슬픈 점철도 있다.

제삿밥을 지던 며느리가 밥이 다 됐나 가마솥을 열고 밥알을 몇 입에 댔는데, 마침 그 장면을 본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다 시름시름 앓고 세상을 떠났다는, 그 며느리 무덤가에 나무가 자랐고, 어느덧 한 맺힌 밥알을 닮은 꽃이 피었다.

이팝나무는 입하에 꽃이 핀다고 해서 입하목(立夏木)을 유래로 삼

기도 한다. 모두 배를 곯던 보통사람들의 애환이 서린 이야기다. 시절은 바뀌어 꽃으로 허기를 대신 달래는 시절이 아니다. 발거리를 찾아 불원천리(不遠千里) 찾아드는 시절이다.

이팝나무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 일상에 지친 도시사람들에게 깊은 쉼과 위안을 주는 지역재생의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

필자의 전임지인 해리면 이팝나무 가로수길 조성이 그렇다.

해리면은 드넓은 서해 갯벌에 면했으며, 기나긴 명사십리를 가졌고, 동호해수욕장과 같은 훌륭한 관광지를 품고 있으나, 관광수요를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컸다.

고창군은 4월말부터 5월 중순에 걸쳐 청보리밭 축제가 열려 이 초록물결 장관을 보기 위한 온 국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도 축제 기간에만 49만여명이 찾아올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해리면에 근무할 때 청보리가 이삭이 패어갈 무렵 하얗게 피는 이팝나무거리로 관광을 연계하는 계획을 했다.

지난해부터 해리면 사람들이 실시 일반 정성을 모았고 그 정성에 재외면민들은 물론 고창군까지 팔을 걷고 나섰다.

이름하여 '해리면 정감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이다. 올 2월 사업의 성공적인 종료로 공식적으로 일릴 때까지 해리면 주요 도로에 4400여주의 이팝나무 식재를 완료했다.

지금은 인근 무장면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지만 가끔 일이 피어 초록으로 덮인 이팝나무 가로수길을 따라 바닷바람이 닿는 곳까지 차를 타고 가보곤 한다.

벌써 군데군데 하얀 꽃잎을 내밀어 약속을 청하는 나무도 있다.

10년 뒤, 해리면은 어떻게 변해있을까, 축제가 열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주민들의 시름이 조금 덜힐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눈부시게 하얀빛의 이팝꽃이 찬란하게 지고 있다. 꽃이 잔다고 서러워할까. 이것이 10년을 보고 나무를 심는 사람의 마음이라.



김형연

고창군 무장면장

사설

전북꽃 정부 약속만으로는 불안하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도민들이 재촉 찾기를 열망하는 지금이다. 그래서 도내 모든 언론사들이 날마다 전북도에 그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로운 예측이 소망스러운 때이다. 전북도는 재 료를 지키기 위해 새정부가 그리려는 그림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했다. 무슨 말이나면 재 료를 찾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새정부의 약속만을 믿고서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새만금 관련부서를 청와대에 신설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빛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지금이다. 전북도가 평가를 보여줘야 할 때이지 않다. 최근까지도 광주와 전남에 도내의 공공기관이 통합되고 예측되는 일이 잦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광주와 전남이 전북보다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크다고 해서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전북은 독립된 지자체이지 광주와 전남에 예측된 게 아니다. 전북은 광주와 전남의 틀러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새만금과 관련해 재료를 찾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을 먼저 만나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효율적인 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귀 기울여 들을 일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줬던 터라 많이 섭섭한 것이다. 아직 조각이 된 것도 아니고 인성이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하며평과 함께 인물 소개가 계속되는 중이므로 좀더 지켜보는 게 도리이기도 하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북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을 또 하거나 전북도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전북도는 전북꽃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전북도는 고창의 낙후와 관련하여 도민의 마음고생이 심함을 알아야 한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헤아려야 한다. 영남에 치이고 광주 전남에 밀려온 세월이 한 두 해가 아니다. 그게 새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계속 된다면 곤란하다. 전북도는 정부가 행여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재료를 먼저 옮겨줘라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저출산과 고령화, 해결책 절실하다

저출산과 거주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지역의 앞날이 어둡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지역 사회를 버림 끝으로 몰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인구 감소가 전국 최고라는 보도가 여러 번 있었거니와 도내 생산 가능 인구가 하릴 없이 줄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전북도는 저출산과 거주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해 도내 인구의 감소는 통계 50년만의 기록이었는데 그럴 것 같아 걱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무슨 대책이고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울의 인구 감소세가 전국 최고라지만 그쪽은 이쪽과 성격이 다르다. 서울은 전세값 상승 때문에 주변의 가까운 도시로 이사를 가고 있기에 그렇다. 전북이 다른 지역보다 속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데 결코 반가운 현상이 아니다.

전북도는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만들기 운동이라도 벌여야겠다. 새정부가 보다 차원 높은 출산 장려책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전북도 또한 준비를 해두고

있어야 한다. 출산 휴가라든가 육아 휴가라든가 그런 배려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다. 직장인이자라면 주변의 눈치를 보아가며 전전긍긍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임산부를 힘들게 하면서 출산 장려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전북도가 먼저 잘 알고 있으려니와 도내의 거주 인구는 현재 180만 명대가 이슬이슬하다. 전북도는 거주 인구의 현실과 관련해 서도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현상이 오래됐는데 여태 대책 마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40%를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이지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다. 이것은 도내 전체 29세 이하 젊은이의 인구 비율이 18%대를 간신히 턱걸이 하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젊은이들은 줄고 있는데 늙은이들만 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전북도가 속히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독자재언

랜섬웨어 예방법을 아시나요?

최근 랜섬웨어의 확산으로 국내 기업의 해킹 피해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랜섬웨어란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킨 단어로 해커들이 기업 및 관공서 등의 서버에 있는 중요 파일을 암호화해 금전 등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랜섬웨어는 대부분 스팸메일의 첨부 파일, 실시간 동영상 사이트의 악성코드 그리고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감염이 된다.

결리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서, 첫째, 파일을 항상 백업해야 한다. 실시간 백업 시스템을 가동하거나 외부저장장치에 별도로 저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수상한 이메일과 사이트는 되도록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알고있는 출처의 이메일이라도 스팸성으로 의심되는 경우 첨부파일 클릭을 자제하고 삭제해야 하며 실시간 동영상 사

이트는 인증된 곳만 방문해야 할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인터넷주소) 실행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 소프트웨어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한다.

백신프로그램 및 스마트폰 등의 업그레이드를 말하는 것으로 랜섬웨어가 항상 진화하기 때문에 탐지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역시 필수적이다.

기타 예방법으로는 컴퓨터 내 파일 속성을 '읽기 전용'으로 변경해 놓으면 수정하기 힘들고 스마트폰 앱 설치 시에 '알 수 없는 출처'의 허용 금지 설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랜섬웨어 의심되거나 감염됐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 또는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110)에 즉시 신고해 피해 확산을 줄이도록 해야한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독자재언

청소년 가출 사회안전망 확보가 절실

가출 청소년 문제를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 치부하면서 문제를 봉합하기 급급할 경우 미치는 사회적 파장은 심각하여 원인부터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사례를 보면, 점차 이 나라의 기동으로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래 가출 청소년들과 치밀한 계획을 짜고 성매매와 특수절도 등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북 지역 신고로 접수된 가출 청소년은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1천여 명에 달하며 이에 따라 매년 2000여 명 이상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10대 청소년 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청소년 가출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제기된 만큼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

가출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일이 힘들어 쉬운 일을 찾다가 나쁜 어른의 팔에 빠져 성매매·절도 등 범죄나 비행에 빠져드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에 가출한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범죄에 이용되거나 빠질 우려가 있어 사회안전망 확보가 선결 과제이다.

사회에서도 비행청소년을 무조건적으로 낙인찍기 보다는 가출 동기에 주목하고, 가출 시에는 집 밖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범죄와 연결되는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 가출은 주로 가족 간 갈등이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 돌봄 기능이 약화되면서 발생하고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가출에 대한 예방교육과 가족 간 친밀감을 되살리는 정책마련 등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